

## LA프로축구팀, 손흥민 영입 추진

### LAFC, 지루 떠난 빈자리 채우고 팬층 확대 효과도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LAFC)가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디 애슬레틱이 보도했다. LAFC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손흥민을 런던에서 불러들여 시즌 후반기부터 함께하길 원하고 있다.

LAFC는 올리비에 지루가 팀을 떠난 뒤 공격진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LAFC는 두 개의 지정선수 슬롯이 비어 있어 손흥민 같은 스타급 선수 영입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기를 자랑하며, 특히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LA에서 팬층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LAFC의 현 골키퍼가 손흥민과 토트넘 시절 오랜 동료였던 위고 요리스라는 것이다. 손흥민이 LAFC로 합류할 경우 런던에서 함께 뛰던 옛 동지와 재회하게 된다.

현재 LAFC는 서부 콘퍼런스 5위에 올라 있으며, 클럽 월드컵 참가로 치르지 못한 경기가 남아 있어 순위 상승 여지도 충분하다. 손흥민의 영입 여부는 LAFC의 올 시즌 성패뿐 아니라 MLS 전체 흥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마스 프랑크 신임 토트넘 감독의 구상에서 손흥민이 핵심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풋볼아시아는 손흥민이 내년 여름 월드컵을 마친 뒤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 ■ LAFC에 '특급 카드' 될 손흥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173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그가 MLS로 이적할 경우 즉시 리그 최고의 공격 자원 중 한 명이 될 전망이다.

상업적 효과도 기대된다. 손흥민은 세계적으로 높은

## LA 교통체증 워싱턴DC 이어 2위

### 평균 출퇴근 30분, 혼잡도 여전히 1위

워싱턴 D.C.가 LA를 제치고 '미국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로 꼽혔다. 컨슈머어페어스가 50대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례 교통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 D.C. 운전자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33.4분으로 전국 최장 기록을 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평일 혼잡 시간(출퇴근 러시아워)은 하루 평균 6시간 35분에 달한다. 이는 LA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수치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71일을 교통 체증 속에서 보내는 셈이다.

컨슈머어페어스는 이번 조사가 "주요 도시의 경제 성장과 교통 체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UCLA 루스킨 공공정책대학원의 마이클 맨빌 교수는 "혼잡은 종종 경제 번영의 신호"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지역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기존 거주자도 차량 이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교통 체증으로 악명 높은 LA는 하루 평균 혼잡 시간이 8시간에 가까워 여전히 '혼잡도' 자체로는 전국 1위지만, 평균 출퇴근 시간은 30분 남짓으로 워싱턴 D.C.에 비해 짧았다.

상위 5개 도시는 워싱턴 D.C., LA에 이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순으로 꼽혔다. 반면 보스턴, 덴버, 포틀랜드(오리건), 시카고, 오스틴은 상대적으로 교통 체증이 덜한 도시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사무실 복귀를 명령한 점도 워싱턴 D.C.의 혼잡 심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2019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숫자퍼즐 정답								
1	4	7	2	5	8	3	6	9
9	2	3	1	4	6	5	7	8
5	6	8	3	7	9	1	2	4
2	1	5	9	3	7	4	8	6
3	7	4	8	6	2	9	1	5
8	9	6	4	1	5	7	3	2
4	3	2	5	8	1	6	9	7
6	5	9	7	2	3	8	4	1
7	8	1	6	9	4	2	5	3

## 가주 '탄약 구매 때 신원조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

제9연방항소법원은 25일 캘리포니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탄약 구매 시 총기 소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패서디나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항소심은 2대 1 판결로 하급심이 내린 영구적 집행 금지 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샌드라 이쿠타 연방항소판사는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는 탄약 구매 신원조회법이 미국의 역사적 총기 규제 전통과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2022년 연방대법원의 '브루엔 판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탄약 구매에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의 제도는 국민의 '무기 소지 및 휴대'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는 헌법 제2수정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2016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당시 총기 소유자가 탄약을 구입하려면 최초 신원조회와 함께 4년간 유효한 탄약 구매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5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이후 주 의회가 법을 개정해 탄약 구매 시마다 신원조회를 받도록 했고, 해당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2024년 '무장 및 금지자 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총기 소유 후 금지 대상자가 된 약 200명이 탄약 구매를 거부당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제이 바이비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대부분의 경우 신원조회 절차는 비용이 1달러에 불과하고 지연 시간도 1분 미만"이라며 다수 의견이 브루엔 판례를 "인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 타운뉴스 업소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속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타운뉴스** 받고 건강한 신문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